

## 신임 회장에 崔振學박사 선임

건협 임시총회서, 부회장에는 林漢鍾이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7월5일 11시, 서교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崔振學부회장을, 부회장에 林漢鍾이사(고려의대교수, 건협 서울시지부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회장 선출방법에 대한 대의원들의 토의 결과에 따라, 의장을 포함한 5명의 전형위원이 선임되어 崔振學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신임 崔회장은 195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전부속 한일병원 내과과장, 병원장(1962~1968), ▲서울의대 내과 외래교수(1963~1984), ▲고대의대 외래교수(1969~1986) ▲대한병원협회부회장(1976), ▲대한의학협회사근부회장(1980), ▲한국보훈병원장(1981~1984), ▲대한 소화기학회회장(1984), ▲경상대학교 병원장(1986~1989),

▲경상의대 산업의학연구소장(1989~1990), ▲한국건강관리협회부회장(1986~1991. 7. 4.)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장직과 함께 경상대의대 교수(1986~), 대한내과학회 부회장(1990~)으로 재직하고 있다.

신임 崔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건강검진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여 검사분야를 확충해나가고 신뢰를 구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정도관리, 대 국민 홍보·계몽, 전문인으로서 사업에 관한 기술 배양 등에 전 직원이 공동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일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결원된 이사에는 高應麟감사(한양대학교병원장)가 선임되었고 감사에는 趙漢翊교수(서울의대 임상병리과)가 선임되었다.